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전문가 업무협의 회의개최

어촌체험마을 발전에 큰 기대 모아져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7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어촌체험마을 컨 설팅 전문가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해양 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어촌체험마을 컨 설팅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선정한 13명의 전문가들에게 사업개념을 정확하 게 전달하고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수행을 당부하였으며, 이후에는 해양수산부 관계



자의 컨설팅사업 개요와 어촌관광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협회 담당자의 어촌체험 마을 컨설팅 체크포인트에 관한 설명, 각전문가별 컨설팅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컨설팅 전문가들은 어촌

체험마을 컨설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최 대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적인 모임 도 갖기로 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에는 관광전공 4명, 역사전공 1명, 수산전공 1명 등 대학교수 6명과 수산교육전문가 2명, 행정전문가 1명, 디자인전문가1명, 관광관련업계대표 2명, 이벤트전문가1명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총 13명의전문가가참여하였다. 컨설팅 전문가의활동이 시작됨에따라 어촌체험마을의 발전에 큰 기대가모아지고있다.

강화도에서 갯벌을 만나다

7.8, 인천시 강화군 동검마을



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 도시민들에게 어촌·어항·어장의 각종 체험 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7차 체험행사가 지난 7월 8일 강화 동검마을에서실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지역 도시민 80 여명이 참가하여 어촌마을과 주변 어 촌·어항·어장에서 갯벌생태체험, 어 촌체험전시장 견학, 수산물 시식, 지역 문화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오전 무렵 강화

에 도착한 일행은 갯벌에서 열린 장어잡기대회와 운동회에 참여하였다. 어른과 아이 모두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맨손으로 갯벌장어를 잡았으며 두 사람이 다리에 끈을 묶고 갯벌을 달리는 2인3각 경기를 했다. 운동 후에는 참가자들이 잡은 장어를 어촌주민들이 손수 손질해주고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오후에는 강화갯벌센터를 방문하였다. 갯벌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갯벌의 자연생태에 관한 영상물 시청, 망원경을 이용한 갯벌관찰 등이 이루어졌다.

7.14 서천 월하성마을 7.14~15 함평 석두마을 7.14~15 완도 임촌마을 7.21~22 신안 수락마을

마지막으로 전등사에서 보물로 지정 되어 있는 대웅전과 약사전 등 지역문화 재를 감상한 뒤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날 행사의 관련 사진과 참가후기 등을 해양관광포털 바 다여행(www.seantour.com)에 게재,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8차 행사는 7월 14일 서천 월하성마을에서, 9차 행사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함평 석두마을에서, 10차 행사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완도 임촌마을에서, 11차 행사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안 수락마을에서 열렸다.

